

[요약]

2003 중국경제 뉴 트렌드

- 디플레이션 완화 조짐, 소비시장 팽창 기대 -
- 설비·원부자재 수입수요 확대 -
- 외국기업 稅制혜택 축소 가능성, 반덤핑엔 유의해야 -

올해 중국 경제를 특징짓게 될 6가지 새로운 추세는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내수 모멘텀 회복 ▶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증시 회복세 진입과 ‘創業板’(제2 증시) 출범 가능성 ▶中·外資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논의 가속화 ▶설비·원부자재 수입 확대와 반덤핑 공방 확산 ▶‘세계는 중국으로, 중국은 세계로’ 등이다.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내수 모멘텀 회복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공급과잉 현상이 2002년 하반기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공장출고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03년 중 디플레이션 탈출 가능성이 있고 미폭의 인플레이션도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투자와 소비를 성장 엔진으로 삼고 내수주도형 성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진작 조치가 성공할 경우, 1990년대 초반의 집중 구매현상인 ‘소비열점’(消費熱點)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예견된다.

▶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2002년 말 현재 중국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비율은 총 대출금의 19.8%,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자산 비율은 26.1%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확대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높은 저축율과 풍족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인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증시 회복세 진입과 '創業板'(제2 증시) 출범 가능성

수년 간 침체가 계속된 거래소 시장은 2003년 증시 회복주기 진입과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호전될 전망이다. 화공, 항만 등 업종을 중심으로 대형 우량주 출현이 예상된다. 출범시기가 미루어져온 제2 증시는 정부조직 개편 후 하반기 경 출범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 中·外資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논의 가속화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는 이미 원칙적으로 기정 사실화된 조치이나 외자유치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그 동안 시행시기가 미루어져왔다. 올해 WTO 가입 2차 년도를 맞아 산업 각 부문에의 영향분석이 명확해지면 세율 단일화 논의(또는 조치)가 표면화될 것이다. 현재 각각 33%와 15%인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소득세율은 24% 선에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다.

▶ 설비·원부자재 수입 확대와 반덤핑 공방 확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투자와 생산에 수반되는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IT, 자동차, 철강 부품 수입 수요가 확대돼 관련 분야 수출전망이 밝다. 그러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출가격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세계는 중국으로, 중국은 세계로

중국은 지난 1월 하루 평균 108건 3억 달러의 투자계약 실적을 올렸다. 올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은 지난 해 실적(527억 달러)을 상회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기여도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있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도 크게 활성화되면서 ‘Made in China’(중국내 생산된 중국제품) 뿐 아니라 ‘Made by China’(해외 현지법인 생산 중국제품)의 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다.

2003 중국경제 뉴 트렌드

해외조사팀 박한진 과장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내수 모멘텀 회복

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중시 회복세 진입과 ‘創業板’(제2중시) 출범 가능성

中·外資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논의 가속화

설비·원부자재 수입 확대와 반덤핑 공방 확산

세계는 중국으로, 중국은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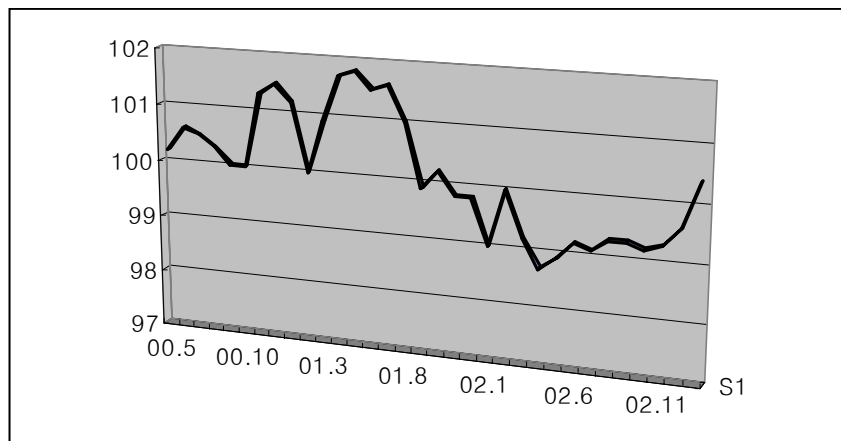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내수 모멘텀 회복

-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상품 공급과잉 현상이 2002년 하반기 이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물가와 공장출고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03년 중 디플레이션 탈출 가능성이 있고 미폭의 인플레이션도 예상됨
- 투자와 소비를 성장 엔진으로 삼고 내수주도형 성장에 나선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진작 조치가 성공할 경우, 1990년대 초반의 ‘소비열점’ 현상이 재현될 수 있음

□ 소비자물가 회복세

- 2001년 중반부터 하락세를 보여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02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3년 1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섬
- 월별로, -1.0%('02.1) → 0.0%('02.2) → -0.8%('02.3) → -1.3%('02.4) → -0.8%('02.6) → -0.7%('02.8) → -0.4%('02.12) → +0.4%('03.1)의 추이를 보임

<도표 1> 중국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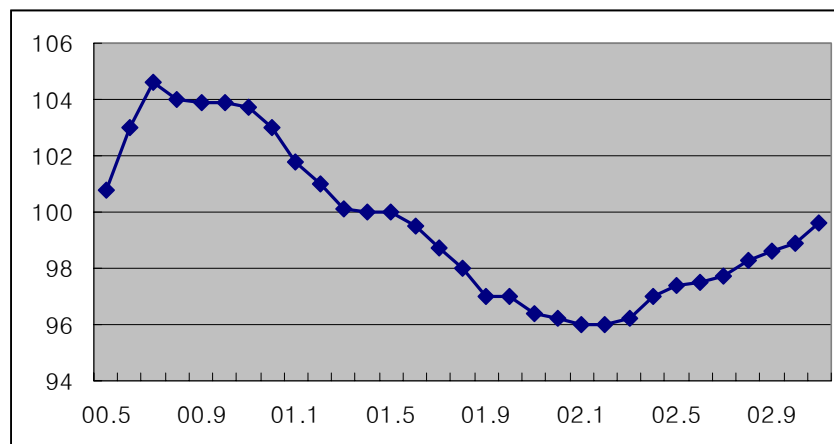


자료원 : 中國國家統計局(www.stats.gov.cn)

□ 공장출고가격도 상승세

- 2000년 8월 이래 하락세를 이어온 생산자 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s)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2년 말에는 전년 동월 수준에 달함
- 공장출고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 출하지수는 2003년에 플러스에 진입, 기업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전망

<도표 2> 중국의 월별 공산품 생산자 출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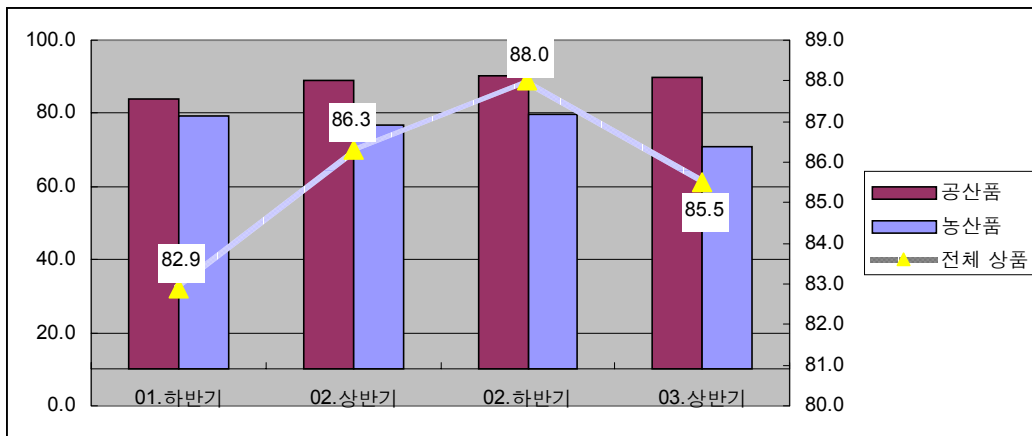


자료원 : 中國國家統計局(www.stats.gov.cn)

□ 공급과잉 회복 조짐

- 1998년 이래 심화된 상품 공급과잉 현상이 2003년에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00개 주요 상품의 공급초과 비율은 '97년 하반기 31.8%에서 이후 80%('99년 하반기)→83.0%('01년 하반기)→86.3%('02년 상반기)→88.0%('02년 하반기)로 급속히 확대됐으나 '03년 상반기에는 85.5%로 낮아짐
- 다만, 공산품의 공급초과비율 완화 정도는 아직 미흡함

<도표 3> 중국의 상품 공급초과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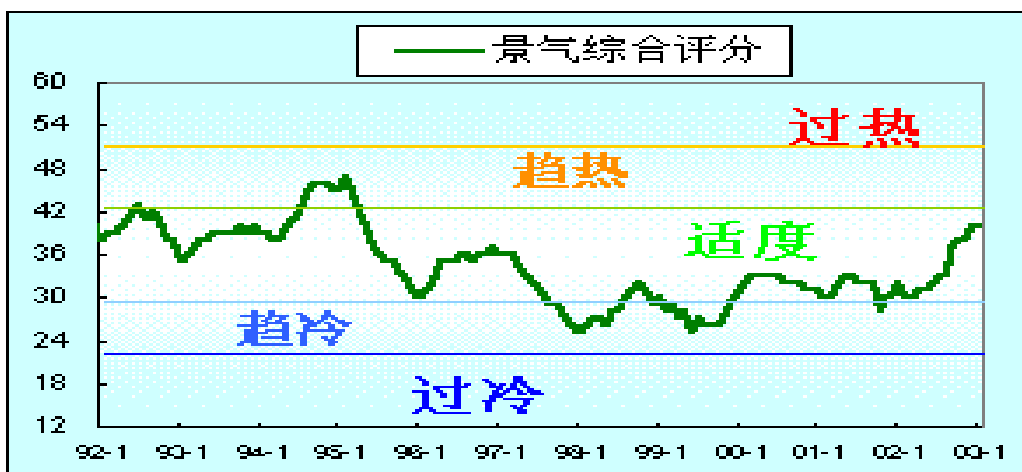


주 : ‘공급초과비율’은 대상 품목중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품목의 비중
 자료원 : 中國國家經濟貿易委員會(www.setc.gov.cn)

□ 경기종합지수 ‘냉각’에서 ‘정상’으로

- 중국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가 매월 발표하는 경기종합평점(景氣綜合評分)은 2002년 초반까지 불안한 안정세를 보였으나 중반 이후 정상 상태로 진입함 1)

<도표 4> 중국의 경기종합평점 추이



주 : 24 미만 : 과냉(過冷), 24~30 : 냉각(趨冷), 30~42 : 정상(適度), 42~50 : 과열조짐(趨熱), 50 이상 : 과열(過熱)

자료원 : 中國國家信息中心中經網(www.cei.gov.cn) 전제

- 고질적 공급과잉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공장출고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기종합지수가 지속 상승할 경우, 중국은 2003년에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
- 중국 내 일부 관변 연구기관과 메릴린치 등은 미폭의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내수주도 성장 나설 듯

- 2002년까지 중국은 수출(外需)과 투자에 의한 성장을 지향해 왔으나 2003년 들어선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 투자와 소비(內需)를 주요 성장 엔진으로 활용할 전망
 - 대외 여건 : 국제유가 상승, 수출시장 환경 불안 2)
 - 대내 여건 : 성장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
- 이는 최근 한국에서는 내수주도 성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투자와 관련, 중국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1998년 이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왔으나 2003년에는 조정이 불가피함
- 적자예산을 편성해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하는 중국의 재정정책은 불황국면을 극복하는 전형적인 케인즈(Keynes)식 처방이며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기여도가 1.75%에 달해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음 3)

-
- 1) 경기종합평점은 ▷공산품 생산액 ▷공산품 판매액 ▷수출입 총액 ▷통화량(M1) ▷소비재 판매총액 ▷소비자 물가지수 ▷고정자산투자액 ▷화물운송량 ▷부동산(商品房) 판매액 등을 포함한 12개 주요 경가지표의 종합지수임. 2003년 4월 까지의 단기 지수예측에서도 '정상'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研究中心; www.drc.gov.cn)는 최근 발표한 중국경제예측 보고서에서 모형분석 결과, 2003년 수출증가율이 2002년 실적(22.3%)에 크게 못미치는 10% 전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시장환경 불안, 전년도 실적 과다, 수출증치세 환급지연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함

- 그러나, 중국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이 감세가 아닌 국채발행
이어서 재정적자 누적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음
- 따라서, 2003년에는 국채발행 규모의 조정(소폭 축소), 감세
확대, 재정투자 방향조정 등의 조치가 예상됨
-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가장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소비(내수) 진작임
 - 금융권의 소비자 신용대출 범위 확대 4)
 - GDP의 10~20%선(1~2조 위안; 한화 약 144~288조 원)으
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5)
 - 소비경기촉진 차원의 임금인상 유도 등의 정책조치가 예상
- 내수진작 조치가 성공할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른
바 ‘소비열점’(消費熱點)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호재가 될 전망 6)

-
- 3) 상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최근 “재정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증가를 가져오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서는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말함
중국이 재정정책을 중단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
임 ①통화긴축이 마무리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
②실업률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기록 ③민간투자가 정부투자를 대신해
투자수요 증가를 주도 ④국내 소비수요의 내재적 성장 ⑤국제경제환경
개선으로 외수(外需)의 뚜렷한 안정국면
 - 4)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 www.p5w.net) 보도에 따르면, 1위안의 소비자
신용대출이 1.5위안의 상품소비 효과를 창출해 1998~2000년 간 이루어진
신용대출로 각각 400억 위안, 1,400억 위안, 4,300억 위안(한화 약 62조
원) 상당의 구매력이 증가함. 2002년 부동산과 자동차 부문 성장률이
30% 이상에 달한 것도 신용대출의 결과로 분석됨
 - 5) 국가통계국 치우샤오화(邱曉華) 부국장은 지난 2월 중국정부가 세원(稅源)
확대 차원에서 지하경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6) 소비열점이란 특정 소비재에 대한 집중 구매현상을 말함. 중국은 당초
2000년경 가전제품 교체시기가 도래하면서 소비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소
비열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90년대 후반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으로 소비시장이 냉각돼 소비열점이 스쳐지나감

금융위기 가능성 미미

-
- 2002년 말 현재 중국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비율은 총 대출금의 19.8%,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자산 비율은 26.1%이나 실제로는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외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확대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 가속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높은 저축율과 무역 흑자, 풍족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인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미미함
-

□ 은행 부실채권비율 40% 이상

-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중국의 은행개혁》(Banking Reform in China-Mission Critical) 자료에 따르면, 국유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GDP의 190% 선에 달함
 - 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6천 억 달러 내외로 GDP의 30~4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별로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도표 5> 중국의 지역별 경제성장률과 은행 부실채권 비중

	華東	東北	西北	華南
경제성장	高	低	低	高
은행 부실채권	低	高	低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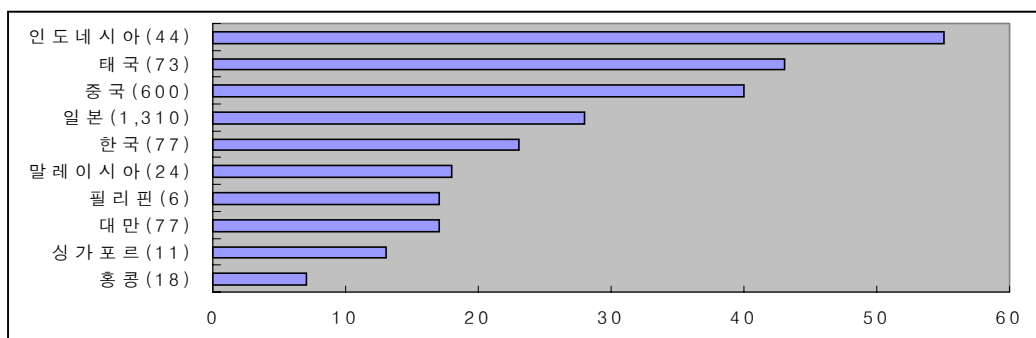
자료원 : 中國人民銀行(www.pbc.gov.cn) 貨幣政策委員會

- 이는 아시아권에서 인도네시아, 태국보다 낮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써 총 대출액의 약 40%가 부실채권인 것으로 추정됨
- 골드만 삭스는 중국정부가 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약 3,7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함

□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아

- 4대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고 3월 중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도 금융위기 방지에 노력할 것임
- 중국 정부는 2천 7백억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 은행 자본금으로 충당함

<도표 6> 중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은행 부실채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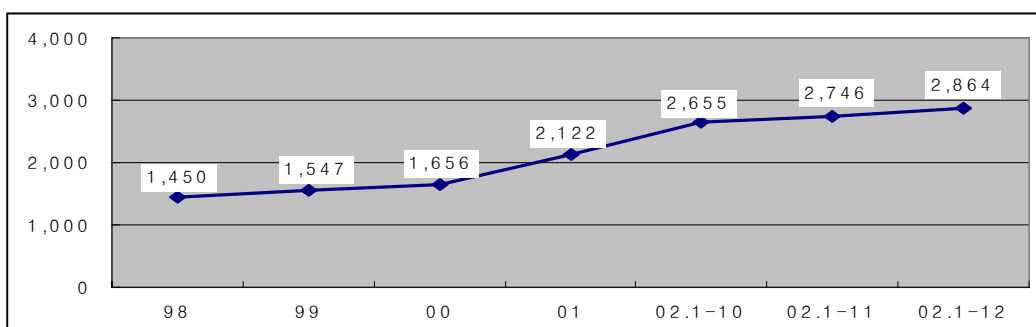


자료원 : Goldman Sachs(홍콩 信報 2002년 12월 14일자 전제)

- 아래 요인들도 금융위기 억제요인으로 작용함
- 높은 저축율 : 7.4조 위안('01년)→8.7조 위안('02년) 7)
- 풍족한 외환보유고('02년 12월 말 현재 US\$ 2,864억)
- WTO 가입후 중국계 은행과 외국계 은행 전략적 제휴 확대

<도표 7>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추이

(단위 : US\$ 억)



자료원 : 中國人民銀行

-
- 7) 개인 위안화 저축예금에 기타 개인자산을 더할 경우, 실제 민간 금융자산 규모는 10조 위안(미화 약 1조 2천억 달러)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

증시 회복세 진입과 ‘創業板’(제2 증시) 출범 가능성

- 침체가 계속된 거래소 시장은 2003년 증시 회복주기 진입과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호전될 전망이며 화공, 항만 등 업종을 중심으로 대형 우량주 출현이 예상됨
- 출범시기가 미루어져온 제2 증시는 정부조직 개편 후 하반기 경 출범할 가능성이 예상됨

□ 수년 간 침체로 증권사 90%가 적자

-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수년 간 증시가 침체돼 왔음
 - 이는 증시 규모가 작아 전체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주식투자가 아직은 주요 이재(理財)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실적 기준으로 전국 110개 증권사 중 90%가 적자상태임

□ 올해 회복주기 진입 가능성

- 중국 증시는 1993~2001년 7월 경까지 4년을 주기로 ‘쇠퇴-부진-회복-호황’을 반복함
 - 매 단계별로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돼 2003년 중반 경부터는 부진에서 회복기로 들어서고 2004년 호황기에 이를 전망임
 - 주요 종목으로는 화공, 항만, 시멘트, 제약, 제지, 금융 관련 주식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차원의 증시 부양책도 속속 나올 전망

□ 더 이상 미를 필요가 없는 제2 증시 출범

- 중국은 당초 늦어도 2001년 말 또는 2002년 초까지는 기술주 위주의 제2 증시를 선전(深圳)에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지연돼왔음
 - 그러나, 기존 거래소 시장에서의 자금이탈 가능성, 세계적인 기술주(株) 혼조세의 중국 전염 가능성 우려 등 대내외 문제를 고려해 제2 증시 출범시기를 저울질해왔음
- 그러나, 2003년 중 중국 거래소 시장의 회복세 진입이 가시화 된다면 제2 증시 출범시기도 더 이상 미를 필요가 없다는 중국금융 관측통들의 견해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음
 - 금융당국은 이미 4년 전부터 제2 증시 출범을 준비해왔음
 - 2003년 하반기 경 세계적인 투자심리 회복 가능성
 -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정부 출범 후 새로운 경제성장 촉진책 필요 8)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후 제2 증시 출범시 상장요건은 기존 거래소 시장에 비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제2 증시 상장의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제2 증시 출범은 중국 내 기업경영 여건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현지금융 조달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임

8) 최근 중국에선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무선통신, 인터넷 보안, 생명공학 등 향후 중국경제를 이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술주 위주의 제2증시 출범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이는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함

中・外資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논의 가속화

-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이미 기정 사실화된 조치이나 외자유치에의 영향 등을 고려 그 동안 시행시기가 미루어져 온 것으로 해석됨
- WTO 가입 2차 년도를 맞아 산업 각 부문에 대한 영향분석이 명확해지면 세율 단일화 논의(또는 조치)는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음

□ 내국인 ‘역차별’ 시정 차원의 조치

- 중국은 중국 기업에게는 33%의 기업소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개발구 등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면제-3년 반감’의 추가적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WTO 가입 후 외국기업에 대한 자국시장 개방도 가속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내국인 역차별 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왔음
 - 이에 따라, 신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에는 내·외자(内外資)기업의 기업소득세율 단일화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내수진작 조치와도 맥을 같이 함
 -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4% 내외에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며 종래 정책 변경시의 선례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기 보다는 ‘先시행-유예기간 적용’의 형태가 예상됨
 - 다만, 현지 재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계속될 전망이다

□ 투자방침 확정땀 조기 진출해야

- 따라서, 중국투자를 이미 결정한 기업이라면 가능한 조기 진출을 통해 비용절감을 모색해야 함

설비·원부자재 수입 확대와 반덤핑 공방 확산

-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투자와 생산에 수반되는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일반 전기전자, IT, 자동차, 철강관련 부품 수입수요도 증가할 것임
- 그러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출가격 관리에 유의해야 함

□ 외국인투자 급증에 따른 수입확대 효과

- 중국은 외국인투자 지속 증가 및 자국 기업 생산력 확대 추세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이며 이 과정에서 투자와 생산에 수반되는 설비·원부자재 수입이 급증세를 보일 전망
 - 일반 전기전자·IT·자동차·철강 등 부품 수요확대가 예상돼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진출 전망이 밝음

□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듯

- 중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지속 확대와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외국산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과 주요 교역국 간 반덤핑 조사 공방이 확산될 전망
- 특히, 중국은 2003년 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우려됨 9)
 - 2002년 중국의 반덤핑 조사 실적 10건 중 한국은 9건으로 최다 조사대상국으로써 그 조사 결과가 올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신규 조사착수 가능성도 상존해 저가수출 지양 등 수출가격 관리에 유의해야 함

9)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3년 1월 무역적자(수출 : US\$ 297.76억, 수입 : US\$ 310.16억, 수지 : US\$ 12.40억)를 기록해 올해 무역수지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야할 상황임

세계는 중국으로, 중국은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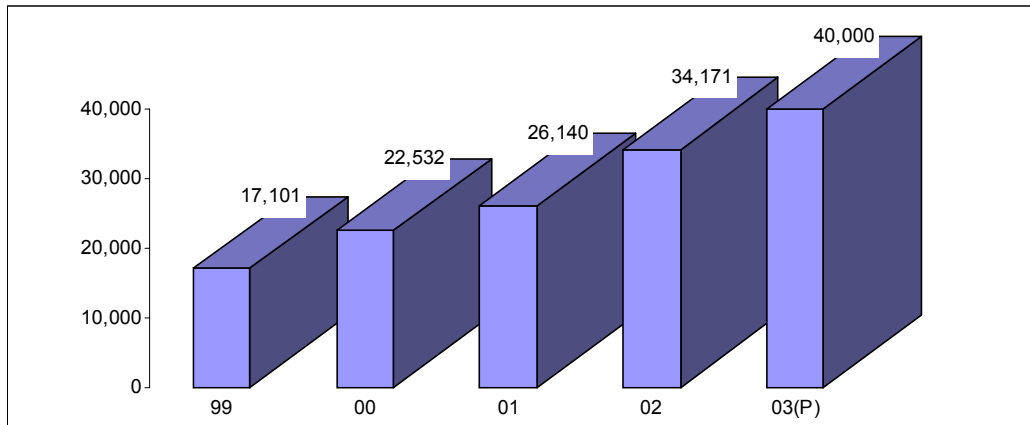
- 2003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은 2002년 실적(527억 달러)을 상회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수출입 기여도가 보다 높아질 전망
- 경쟁력있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Made in China’ 뿐 아니라 ‘Made by China’의 경쟁력도 제고될 전망

□ 2003년 외자유치실적 사상 최고치 전망

- 2002년 1~12월 중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계약기준으로 827.7억 달러(전년동기 19.6% 증가), 실행기준으로 527억 4천만 달러(12.5% 증가)를 기록함
 - ‘02년 12월말 현재 중국 내 외자기업 수 : 424,196개 사
- 2003년 1월 중 실적은 계약기준 92억 4천만 달러, 실행기준 3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5.3%와 48.2%의 급증세를 보여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 ‘03년 1월말 현재 중국 내 외자기업 숫자는 427,545개 사로써 1개월 새 3,349개 증가함
 - 하루 평균 약 108건, 3억 달러의 투자계약이 이루어짐
- 최근 연도별 승인기준 외국인투자유치 건수는 17,101건(‘99)→22,532건(‘00)→26,140건(‘01)→34,171건(‘02)에 이어 2003년에는 4만 건 수준에 달할 전망
 - 실행기준 연간 투자유치 금액도 2002년 실적(527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외자기업의 중국 무역기여도는 수입, 수출, 총교역 모두 50%를 넘어섰으며 지속 증가 추세임

<도표 8>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건수 증가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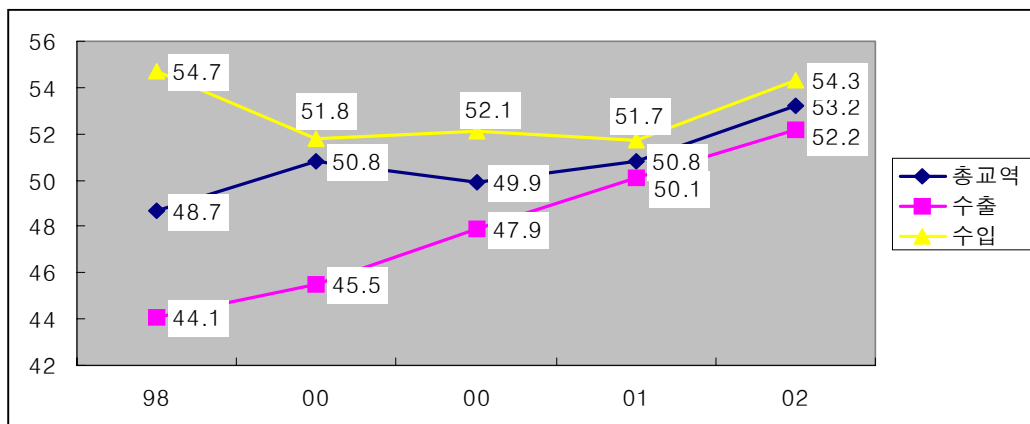


주 : 수치는 외국인투자 승인(批准) 기준임

자료원 :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www.moftec.gov.cn)

<도표 9>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



주 : 수출입 비중은 중국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www.moftec.go.kr)

-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 중 한국의 대중 투자도 폭증세를 보임
 - 투자건수 : 409건(1일 13.2건 꼴; 전년동기 대비 56.1% 증가)
 - 계약금액 : 5억 8천만 달러(1일 1,870만 달러꼴; 107.3% 증가)
 - 실행금액 : 2억 3천만 달러(1일 742만 달러꼴; 123.2%)

□ 해외투자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나서

-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일부 자국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해외 투자를 허용해왔으나 최근 들어 동부와 남부 연해지역의 가전, 방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른바 ‘저우추취’(走出去)라 불리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1960년대의 일본, 1980년대의 한국의 경우와 같이 자국 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
 - 늘어난 외환보유고도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이제까지 중국의 해외투자(자본이동)는 아래와 같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왔음
 - 합법적 경로 : 대형 국영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중소 민간기업의 해외 가공무역투자
 - 불법적 경로 : 개인(또는 제3국) 명의의 해외투자 10)
- 중국 정부는 향후 경쟁력있는 국영기업과 사영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음 11)

10) '02년 6월말 기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공식적으로 6,758건, 89억 달러지만 불법적인 자본도피를 포함,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1)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쿼터관리를 하고 있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두고 있음. 또한, 해외투자관련 법령규정은 국영 기업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사영기업에 대해선 입법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 밖에도 엄격한 외환통제와 해외투자 위험담보기관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Made by China’의 부상

- 국가외환관리국(www.safe.gov.cn)은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6개 지역 12) 외에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을 추가로 해외투자용 외환매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함
- 이들 지역소재 기업들은 위안화로 외환을 매입,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됨(지역별로 2억 달러 한도)
 - 또한,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외환위험도 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해외발생 소득은 반드시 국내로 송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 해외 증자 또는 재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이는 위안화 자유태환화를 위한 초기 준비과정의 일환인 것으로도 풀이되며 앞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 종래 ‘Made in China’(중국내 생산된 중국제품) 뿐 아니라 ‘Made by China’(해외 현지법인 생산 중국제품)의 경쟁력도 제고됨을 의미함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제조업투자 외에 해외증시 상장을 통해서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 홍콩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영기업 지역인 저장성의 경우, ‘03년 1월 현재 27개 기업이 홍콩 또는 싱가포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임

12) 기존 6개 지역은 저장(浙江), 장쑤(江蘇),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광둥(廣東), 푸지엔(福建) 등임

<끝>